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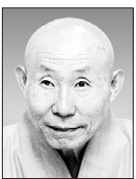
일 주 문



국민원로회의 위원 위촉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3월 12일 대통령 직속 주요 국가정책 및 현안 자문기구인 '국민원로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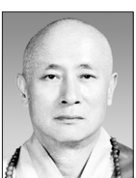
제주 오동선원 초청법문
장수 죽림집사 조실 도문 스님은 3월 8일 제주 오동선원(주지 제음)에서 <금강경>을 주제로 법문했다.



경산 무량선원 점안식서 법문
봉화 축서사 선원장 무어 스님은 3월 15일 경북 경산 무량선원 아미타불 점안식에서 법문했다.



직지사 신도회장 취임법회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3월 9일 경내에서 이근우 신도회장(미국종합처리장 대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임시 중앙총회 개최
태고종 중앙총회의장 인공 스님은 3월 31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임시 중앙총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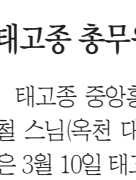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임원 취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이 2월 24일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 신임임원으로 취임했다. (02)737-6922



장애인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문 스님은 장애인 정보화 교육생을 모집한다. 접수마감은 3월 31일까지. (054) 633-6415



25일 '사자의 서' 공개 강연
<체험으로 읽는 티베트 사자의 서> 저자 강선희씨는 불교여성개발원 초청으로 3월 25일 오후 3시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강연한다. (02)722-2101



태고종 총무원장 표창
은 2005년부터 '선남선녀 인연 맺기' 특별법회로 300여 쌍의 결혼을 주선했고, 베트남 한국불교 문화센터 설립에도 공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 승가교육의 요람 만들겠습니다”

중앙승가대 제6대 총장 태원 스님

“종단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바른 승가교육의 요람을 만들겠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제5대 총장에 선출된 태원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정릉 보국사 주지)은 3월 9일 임명장 수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앙승가대의 새 비전을 보였다.

승가학원 이사장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태원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승가대가 여러가지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러가고 있다.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잘 수렴해 학교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총장 태원 스님은 어려운

중앙승가대 살림살이는 물론 총장선출이 미뤄지면서 생긴 종단과 학교구성원 등의 갈등도 봉합해야 할 중책까지 맡았다.

“가정 사이에도 부부간 갈등이 있고, 자식 키우는데도 부모자식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과 불화가 가정행복을 위협하는 듯 보여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살림을 유쾌하게 하는 수행이 됩니다.”

스님은 “총장 선출 전까지 중앙승가대 동문회와 총장추천위원회, 교수협의회 등이 갈등을 빚었던 것도 중앙승가대 발전에 위한 애정의 발로였다. 각 구성원간 갈등이 중앙승가대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태원 스님은 “종단 어른스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교수와 학인스님들의 의견도 반영해 교육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심(下心)으로 총장직을 수행할 뜻을 밝혔다.

스님은 “도서관 기숙사 설립 등 시설 개비의 물질적 확장에 앞서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의 내적·정신적 향상에 중점을 둔 수행터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질의 교육을 하려면 양질의 교육자와 시스템, 수혜자의 마음 가집이 갖춰져야 합니다. 중앙승



가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태원 스님의 중앙승가대 제5대 총장 취임 법회는 3월 19일 오후 3시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봉행된다.

조동섭 기자

“다함께 사는 세상” 만들자

경불련 상임대표 법등 스님

“자비실천으로 상생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3월 10일 서울 신당3동 동사무소 5층에 무료급식소 “자비의집”을 재개원한 경불련(경북불교계)은 “불교계가 사회활동에 눈뜨기 전이 분야에서 앞장서는 정신을 이어 ‘다함께 사는 세상’의 창립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경불련은 1991년 불교계 첫 NGO로 출범해 ‘우리농업 지키기 평화행진’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위 대표자회의’ 등 농업·여성·이주민·복지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온 불교계 선구적 단체였지만 2000년대 초 조직 내홍을 겪으며 활동이 주춤해 있다. 1993년 미아동에서 시작해 재개발로 사업이 중단됐던 ‘자비의집’ 재개원은 경불련이 다시 초심으로 출발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새출발에 법등 스님을 비롯해, 산하 (사)이웃을돕는사람들 이사장 지관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호산 스님(운문사 주지), 조문환 국회의원(한나라당) 등 개원식에 참

석한 사부대중은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사회 활동을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법등 스님은 “자비의집”이 다시 자리 잡기까지 지관 스님을 비롯한 여러 봉사자들이 노력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는 ‘자리이타’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말하지만 시대 더욱 필요한 것은 ‘이타’와 ‘하화’라며 ‘서로 상생하고 돕는 일에 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불자들이 어려운 이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자’고 당부했다.

한편, ‘자비의집’은 매주 수요일 목욕터르신 40여 가구에 무료 도시락을 배달하고, 월 1회 도배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1회 국제불교문화페스티벌을 11월 경 개최하고 산하 ‘이웃을돕는사람들’이 진행하는 ‘희망만들기’ 등 복지분야 사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02)722-9066

노덕현 기자

“대중결사로 세상바꿔요”

청정승가 대중결사 의장 진오 스님

“시대의 방관자가 아닌 부처님 법에 의지해 국가와 종단 발전에 도움되는 진정한 대중결사가 되겠습니다.”

3월 6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창립한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이하 대중결사) 창립총회에서 초대의장에 선출된 진오 스님(구미 대문사 주지)은 다부진 결의로 대중결사를 통한 세상바꾸기를 선언했다.

“바른 대안 제시를 위해 매일 한 차례 대중결사아카데미를 개최할 것입니다. 대중결사아카데미는 전문가와 회원스님들이 나서 포교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지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입니다.”

대중결사는 불교계와 사회에 대한 바로미터를 얻고자 4월 중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3개월간 실시할 설문조사는 스님과 재가불자와 함께 일반인을 포함시켜 한국불교에 관한 인식수준과 기대와 변화요구 수준 등을 가능하게 된다.

진오 스님은 “실천결과가 나오는 8월 이후 워크숍을 열겠다”며 “이슈로 떠오른 총무원장 선거 관련 문제도 설문과정에서 자연

히 도출될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스님은 “설문조사를 포함한 대중결사 활동이 종단과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총무원장 선거 등에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대중결사를 두고 일각에서 제3의 정치세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진오 스님은 “정치적일 수는 있으나 말이 정치적 바르케 가자고 하는 행동일 뿐이다. 대중결사의 거침 예정으로 절대 소모적인 논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창립 첫 해는 회원교류 등 내부결속에 힘을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대중결사 회원스님들이 창립법회 때 봉정한 장기기증 및 사유재산 종단기탁서 서약서를 종단 전체로 확대시키자는 원력도 세웠다.

진오 스님은 “초심을 잃지 않고 파사현정을 위한 정도를 견뎌다”고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BTN, 조계종에 자비니눔 CD 1500매 기증



BTN 구본일 사장은 3월 12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3·27 전국사찰 1배 100원 108매 모금법회 에 사용될 108매 CD 1500매를 기증했다. 불교TV는 조계종 자비니눔 공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노덕현기자

미 조지아주립대 운문사서 템플스테이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 교수, 학생 27명이 3월 10-13일 청도 운문사주지 신성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 참선 수행, 예불, 발우공양 등 산사체험과 함께 다담과 요가 등 다채로운 한국불교와 문화를 체험했다. 이상연기자

서초구사암연합회 경로잔치



서초구사암연합회(회장 법안)는 3월 12일 서초구민관에서 경로잔치를 열고 청소년 장학금 전달 및 모범 공무원 불자 시상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사암연합회스님 박성중 서초구청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연기자

관음사 창건 70주년 ‘염쟁이 유씨’ 공연



청주 관음사주지 현진씨는 3월 5일 사찰 창건 70주년을 맞이해 갈등(인국) 염쟁이 유씨(배우 유순웅)를 법당으로 초청해 특별 무대를 개최했다. 법당을 가득 메운 500여 신도들은 출고 웃는 등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해철총장사장

청주교도소 주성대학 흥덕캠퍼스 입학식



청주교도소(소장 한보위)는 3월 9일 전국최초 교도소 2년제 전문학사과정인 주성대 흥덕캠퍼스 입학식을 봉행했다. 흥덕캠퍼스는 지금까지 모범재소자 240명에게 전문학사 자격증을 수여했다. 해철총장사장

비영리 종교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비공덕

양화사 건강원

권 자원봉사의 집 권

서금요법수지침술

▷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 「무료봉사」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 드리기 “자원봉사의 집” 양화사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 부인성 질환)(아토피, 피부질환)(신경통, 관절질환)(디스크, 혈압질환)(불치, 난치성질환)(회귀성질환)(비만관리)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정통경락” “민간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민간요법)(수지기능식품, 체질개선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방문상담 및 봉사해 드립니다 ※

● 서금요법 · 수지대체요법 · 수지침 ·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 등에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수지침, 전국각종단체 등 “무료출장교육” 신청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한상기 / 분회장: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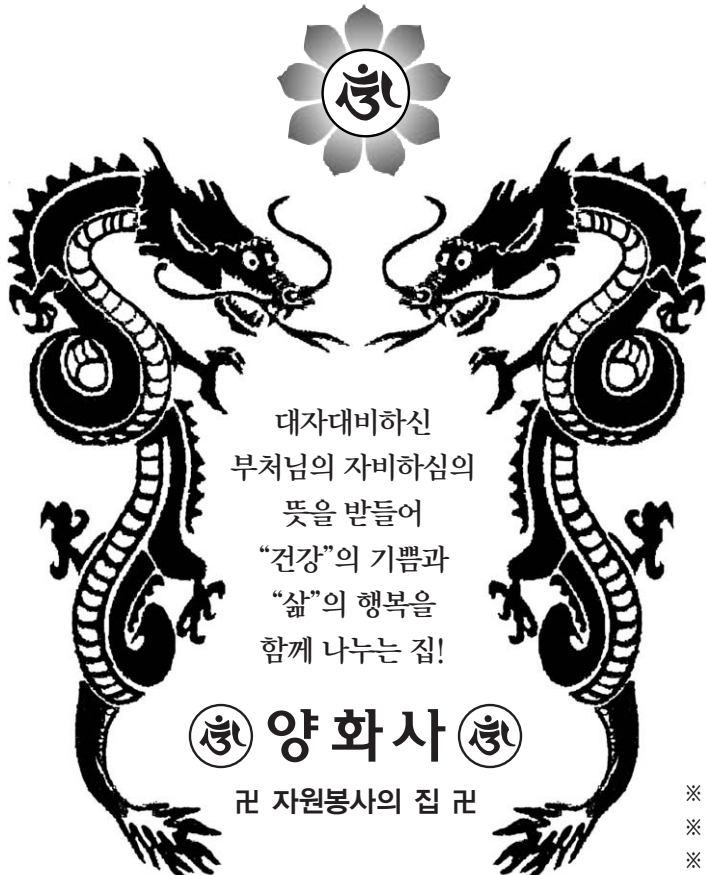
※ 문의 및 상담전화: 031)251-2213, 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농협 2071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님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해서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양화사(자원봉사의 집)은 불자님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합니다 ◆

양 화 사 (자 원 봉 사 의 집) 주 지 천 광 합 장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하심의 뜻을 받들어 “건강”의 기쁨과 “삶”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집!

양 화 사

권 자원봉사의 집 권